

『팜필리아가 앰필란썬스에게 부르는 노래』: 여성적 자아와 큐피드*

이진아 (한국외대)

메리 로쓰(Mary Wroth, 1586-1651?)의 『팜필리아가 앰필란썬스에게 부르는 노래』(*Pamphilia to Amphilanthus*)¹⁾는 영국 여성이 쓴 최초의 쏜넷 연작(sonnet sequence)으로서 1621년 로맨스 『유래이니아』(원제목: 『먼가메리 백작 부인의 유래이니아』(*The Countesse of Montgomeries Urania*))와 함께 출판되었다. 17세기 영국의 제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여성이 글을 출판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 관습을 위반하는 것이었고, 더구나 여성들의 입에 오르는 것이 터부시되던 성(sexuality)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연애시를 출판했다는 것은 더더욱 획기적인 일이었다. 물론 로쓰는 시드니(Sidney) 가문의 한 사람으로 삼촌 필립 시드니 경(Sir Philip Sidney)과 고모 메리 시드니 허버트(Mary Sidney Herbert)의

* 이 연구는 200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이하 『팜필리아의 노래』라 약칭하기로 한다.

사회적 문학적 후광의 덕을 본 점도 있을 것이다.²⁾ 로쓰가 자신의 쏘넬트를 쓸 때 삼촌 시드니의 쏘넬트 연작 『에스트로필과 스텔라』(*Astrophil and Stella*)를 염두에 두었겠지만, 남성인 삼촌의 작품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은 남성작가들의 전유물이었던 페트라르카식 연애시에 여성화자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로쓰의 쏘넬트는 성과 사랑에 대한 여성의 관점, 근대초기의 영국 여성 저작권, 여성 주체와/자아의 문제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³⁾

페트라르카식 연애담론은, 비록 정형화된 수사학의 규범을 따르기는 하나, 사랑에 의해 야기된 내면 심리에 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자아탐구나 자기발견 과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로쓰의 쏘넬트의 경우에는 유례없이 남

2) 로쓰가 삼촌과 고모의 후광 아래 있었다하더라도, 그들의 문학적 영향력이 그녀가 로맨스와 쏘넬트를 출판했을 때 사랑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막아주지는 못하였다. 제임스 왕(King James) 치세의 1620년대는 왕의 「여성 풍자」(*A Satire against Women*)가 대변인 역할을 하듯이, 여성의 본질과 지위에 대한 논쟁이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였다. 궁정의 실화사건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실화소설(*roman á clef*)인 『유래이니어』가 출판되자마자 로쓰는 궁정의 귀족들로부터 “겉보기는 양성체(Hermaphrodite)이나 실제로는 괴물”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뜨거운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여성에게는 금기된 행동을 서슴지 않은 결과 얻게 된 비난들로 인해 급기야 로쓰는 자신이 책들을 출판할 의도가 없었는데 출판되었다는 변명조의 편지를 버킹엄공작(Duke of Buckingham)에게 쓰기까지 하였다. 로쓰의 로맨스와 쏘넬트 출판에 얽힌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는 Roberts, *Poems*, “Introduction” 참조.

3) 특히 Michael G. Brennan, “Creating Female Authorship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Ben Jonson and Lady Mary Wroth,” ed. George L. Justice and Nathah Tinker, *Women’s Writing and the Circulation of Ideas: Manuscript Publication in England, 1550-1800* (Cambridge: Cambridge UP, 2002), 73-93; Paula Harms Payen, “Finding a Poetic Voice of Her Own: Lady Mary Wroth’s *Urania* and *Pamphilia to Amphilanthus*,” ed. Sigrid King, *Pilgrimage for Love: Essays in Early Modern Literature in Honor of Josephine A. Roberts* (Tempe, AZ.: Arizona Center for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1999), 1-17; Mary Lamb, *Gender and Authorship in the Sidney Circle* (Madison, WI.: U of Wisconsin P, 1990); Maureen Quilligan, “The Constant Subject: Instability and Female Authority in Wroth’s *Urania* Poems,” ed. Elizabeth D. and Katherine Eisaman Maus, *Soliciting Interpretation: Literary Theory and Seventeenth-Century English Poetry* (Chicago: U of Chicago P, 1990), 307-35; Carolyn Ruth Swift, “Feminine Identity in Lady Mary Wroth’s Romance *Urania*.”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14(1984): 328-46 등 참조.

성 화자 가 아닌 여성화자가 사랑의 여러 경험들을 여성의 관점에서 탐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쓰의 페르소나인 팜필리아가 자아를 탐구하고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그녀와 큐피드와의 관계를 통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로쓰의 쏘넬트에 등장하는 큐피드에 대해서는 이미 학자들이 주목한바 있다.⁴⁾ 조세핀 로버츠(Josephine Roberts)가 이 작품에 등장하는 큐피드의 모습들에 처음으로 주목하였고, 일레인 베일린(Elaine Beilin)은 로쓰가 큐피드의 모습들을 통해 항구한 성실(constancy)의 본질을 탐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로절린드 스미쓰(Rosalind Smith)는 로쓰의 큐피드의 모습들은 제임스 1세 치하의 정치적 상황, 특히 남성 군주의 모습들을 반영한다고 큐피드의 현실 정치성을 주장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큐피드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팜필리아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군주로서의 자아 탐구 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팜필리아는 로쓰의 로맨스와 쏘넬트 연작의 공동 주인공으로 로맨스에 등장하는 팜필리아 왕국의 여왕이 되는 팜필리아와 로마제국의 왕이 되는 나폴리의 왕자 앰필란썬스의 사랑의 관계가 쏘넬트의 배경이다. 팜필리아는 후손이 없는 삼촌의 왕위를 물려받아 팜필리아 왕국의 합법적인 군주가 되는데, 로맨스의 여러 곳에서 그녀의 모습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로쓰의 쏘넬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쏘넬트의 성격상 개인적이고 내적인 측면이 강조되기도 하지만,⁵⁾ 스미쓰가 주장하듯이, 팜필리아가 군주라는 점에서 오히려 작품의 정

4) Josephine A. Roberts, "Lady Mary Wroth's Sonnets: a Labyrinth of the Mind," *Journal of Women's Studies in Literature* 1(1979): 325-26; Elaine Beilin, "The Onely Perfect Vertue: Constancy in Mary Wroth's *Pamphilia to Amphilanthus*," ed. Patrick Cullen and Thomas P. Roche, *Spenser Studies* II (Pittsburgh: U of Pittsburgh P, 1981), 233-41; Rosalind Smith, "Lady Mary Wroth's *Pamphilia to Amphilanthus*: The Politics of Withdrawal,"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30(2000): 427-29; Dubrow *Echoes of Desire: English Petrarchism and its Counterdiscourses* (Ithaca: Cornell UP, 1995), 158-59 등 참조.

5) 예를 들어, Elizabeth Hanson, "Boredom and Whoredom: Reading Renaissance Women's Sonnet Sequences," *Yale Journal of Criticism* 10(1997): 165-91; Jeff Masten, "Shall I turne blabb?: Circulation, Gender, and Subjectivity in Mary Wroth's Sonnets," ed. Naomi J. Miller and Gary Waller, *Reading Mary Wroth*:

치성이 부각될 수 있다. 여성의 권력 문제는 50년이 넘는 여성 군주 엘리자베스의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초기 영국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메리 튜더(Mary Tudor)와 메리 스튜어트(Mary Stuart)의 정치적 역량 때문에 여성 통치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인 존 녹스(John Knox)의 「여성의 흉물스러운 지배 반대의 첫 나팔소리」(*The First Blast of the Trumpet against the Monstrous Regiment of Women*, 1558)를 필두로 그 논쟁이 불붙기 시작하였다. 여성 지배에 대한 근본적인 혐오감은 엘리자베스의 성공적인 통치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고 제임스 왕이 등극한 후 여성의 권력에 대한 논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상적인 국가 조직은 가정의 가부장제를 본뜬 조직임을 강조하고 아버지로서 군주의 권위를 강하게 내세운 제임스 1세 치하의 영국의 상황에서(Goldberg 3-4; Schochet 1-6), 로쓰는 로맨스와 쏫넛트에서 연애 담론 속에 여성 군주의 독립적 자아, 통치 능력, 지배 복종의 문제를 함축시키고 있다. 로맨스에서는 사랑의 욕망과 정치권력의 욕망은 끊임없이 서로 교차하고 있고 페트라르카식 연애담론은 정치적 담론으로 쉽게 변용될 수 있다.⁶⁾ 따라서 여성이며 군주인 팸필리아가 남성 군주인 큐피드에 대해 보이는 반응들은 가부장제의 규범이 정해놓은 성역할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하는 여성의 내면에서 상호 반응하며 갈등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사랑과 권력 두 욕망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줄 것으로 사료된다.⁷⁾ 그리고 쏫넛트 연작에서 사랑의 욕망이 불러일으키는 지배 복종의 역학 속에서 대립하는 큐피드와의 팸필리아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

Representing Alternative in Early Modern England (Knoxville, KY.: U of Tennessee P, 1991), 67-87.

- 6)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숭배가 대표적인 예인데, 로쓰의 작품들 속에도 사랑과 권력의 두 욕망들이 긴밀히 교차하고 있다(Quilligan 325; Salzman 128).
- 7) 성과 권력이라는 두 요소는 어느 사회나 긴밀히 연결될 수 있지만, 특히 엘리자베스와 제임스 1세의 절대왕정 시대에는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다. 이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글들로 Louis Adrian Montrose, “*A Midsummer Night’s Dream and the Shaping Fantasies of Elizabethan Culture: Gender, Power, Form*,” ed. Ferguson, Margaret W., Maureen Quilligan, and Nancy J. Vickers, *Rewriting the Renaissance: The Discourse of Sexual Difference in Early Modern Europe* (Chicago: U of Chicago P, 1986), 65-87과 같은 책의 Jonathan Goldberg 3-32를 참조.

은 로쓰의 로맨스의 중요 주제인 정치권력의 문제, 특히 여성 지배, 성과 권력 문제를 보다 깊게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팜필리아의 노래』에 등장하는 큐피드는 전통적인 페트라르카식 연애시에 등장하는 사랑의 신으로 “큐피드”라고 언급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자주 “사랑”(Love)이라고 불린다.⁸⁾ 이 작품에서 큐피드는 그리스 로마 고전 신화 이야기에 등장하는 장난스럽고 때로는 악의에 찬 놀이를 서슴지 않는 비너스의 아들이어서 그리고 중세문학의 사랑의 궁정(Court of Love)의 군주로 등장한다. 물론 이 큐피드는 팜필리아가 사랑하는 남성 앰필란씨스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인물이다. 베일린의 지적대로(Beilin, *Redeeming Eve* 233), 이 작품이 여타 남성 작가들의 쏘네톨 연작과 크게 다른 점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구애를 목적으로 하거나 연인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앰필란씨스의 이름도 제목에만 등장할 뿐이다. 그 대신 작품은 온전히 여성화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경험들과 그것들에 대한 반응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로쓰의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사랑”이라고 불리는 큐피드는 팜필리아가 겪는 사랑의 경험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경험들의 총체에 남성이라는 성이 부여되어 형상화된 큐피드는 팜필리아 자신의 일부라 할 수 있으며 용의 용어로 그녀의 남성성, 아니무스(animus)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팜필리아에게 있어서 남성적인 면들은 그녀에게 부과된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책임, 즉 군주로서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데, 큐피드와의 관계 속에서 팜필리아는 자신의 남성적 자아를 큐피드에게 투사하며 보다 거리를 두고 사랑에 빠진 군주로서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로맨스에서 팜필리아는 사랑의 고통으로 인해 자주 홀로 물러나 시를 지음으로써 자신을 위로하는데 『팜필리아의 노래』는 그

8) 토마스 하이드(Thomas Hyde)가 중세 르네상스 문학에 등장하는 큐피드에 관한 연구에서 주장하듯이(Hyde 13-20) 큐피드인 사랑은 신, 악귀(demon) 혹은 인간 경험의 형태로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큐피드의 의미를 정확히 결정하기는 애매모호하다. 로쓰의 작품 속의 큐피드 또한 명확히 그 의미를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로쓰 자신은 쏘네톨 P38에 나타나듯이, 큐피드를 사랑의 정신적 심리적 경험들의 형상화로 보고 있다.

과정에서 탄생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비드 노브룩의 말처럼 문학 세계는 현실과 현실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부터 거리감을 부여하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Norbrook 85), 쏘네프트와 같은 글쓰기는 팼필리아가 여성으로서 군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훈련하는 장이 될 수 있다. 팼필리아는 사랑의 경험들을 통해 끊임없이 내면의 여러 움직임들을 성찰하고 사랑 혹은 큐피드와의 관계를 통해 그 경험들의 의미를 형상화하고자 노력한다. 전통적으로 군주는 남성에게 부여된 역할인데 자신은 여성이면서도 군주이므로 팼필리아는 페트라르카식 연애담론에서 남성 군주로 형상화된 큐피드와 지배와 복종을 양극으로 하는 관계의 역학 속에서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긴장과 갈등을 통해 여성이면서 군주로서의 정체성을 성찰하는 동시에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팼필리아의 노래』는 큐피드와 비너스가 등장하는 꿈으로 시작한다. 비너스와 큐피드는 여러 쏘네프트에(1, 58, 85, 95, 103 등) 함께 등장하는데, 이는 다른 남성작가들의 쏘네프트에서 발견할 수 없는 로쓰의 쏘네프트의 독특한 점이다(Villeponteaux 173). 그런데 팼필리아의 꿈에 등장하는 사랑의 여신과 그 아들의 관계는 여성화자가 시작하는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해 중요한 점들을 암시하는 듯하다.

밤의 검은 외투가 가장 어두움을 보이고,
죽음의 모습인 잠이 내 감각을 차지해
내 의식을 앗아가자, 생각은
가장 신속함을 요하는 것들보다 더 신속히 움직였네,
잠 속에서, 날개달린 욕망이 끄는 마차를
나는 보았네; 그 안에는 빛나는 사랑의 여왕 비너스가 앉아있고
그 발치에는 그녀의 아들이 앉아, 그녀가 높이 쳐든
불타는 심장들에게 불길을 계속 더해주고 있었네.
그런데 다른 모든 심장들보다 더 불타는 심장을
여신이 들어 내 가슴 속에 넣었네.
그녀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이들아, 지금 가슴을 단아라; 이렇게 우리가 승리
해야한다”;

그는 그녀에게 순종하여 가엾은 내 심장을 순교시켰네.
 잠에서 깬 나는 그것이 꿈인 양 사라지기를 바랐네,
 허나 이후, 아 이런, 나는 연인이 되었네.

When nights black mantle could most darknes prove,
 And sleepe deaths Image did my senses hier
 From knowledg of my self, then thoughts did move
 Swifter then those most swiftnes need require:

In sleepe, a Chariot drawne by wing'd desire,
 I sawe; wher sate bright Venus Queene of love,
 And att her feete her sonne, still adding fire
 To burning hearts which she did hold above,

But one hart flaming more then all the rest
 The goddess held, and putt itt to my breast,
 Deare sonne now shutt, sayd she: thus must wee winn;

He her obay'd, and martir'd my poore hart.
 I, waking hop'd as dreames itt would depart
 Yett since: O me: a lover I have binn.⁹⁾ (P1)

사랑으로 순교한 심장의 이미지는 페트라르카식 연애시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비유들 중의 하나인데, 여성화자인 팼필리아는 꿈의 비전에서 사랑의 두 신의 힘에 압도되어 완전히 수동적으로 굴복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 꿈에서 사랑의 두 신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랑의 군주는 큐피드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비너스이다. 팼필리아가 두 신의 사랑의 힘에 굴복했지만 그 사랑의 중심인 인간의 마음, 특히 팼필리아의 마음을 쥐고 있는 것은 큐피드가 아니라 비너스이다. 큐피드는 이름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고 비너스의 아들로 소개되며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9) 로쓰의 쏘넷트 작품 원문들은 Josephine A. Roberts, *The Poems of Lady Mary Wroth*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1983)에서 인용한다.

“순종하는” 충실한 신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팜필리아는 비너스에게 복종한 것이다.¹⁰⁾ 꿈은 현실에서 바라는 욕망이 성취된 한 형태라는 프로이트의 가장 일반적인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첫 쏘넬트에 등장하는 사랑의 역학관계는 바로 팜필리아 자신이 소원하는 사랑의 관계이며 그 관계에서 여성의 위치는 팜필리아가 사랑의 관계에서 여성으로서 원하는 위치라 할 수 있다. 헤더 더브로우(Heather Dubrow)의 주장에 따르면, 비너스는 팜필리아의 또 다른 여성적 자아(female alter ego)이며 큐피드는 팜필리아와 동일시될 수 있다(Dubrow 158-59). 큐피드가 팜필리아와 동일시되는 인물이라면 팜필리아 전체보다는 팜필리아의 남성적 자아, 남성성이 투사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의 군주가 여성이고 큐피드는 그 사랑이 타오르도록 하는 신하라면, 팜필리아는 자신의 내면에서 여성적 자아가 남성적 자아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사랑을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녀는 남성 연인에게 복종하여 지배되기보다는 여성 자신이 사랑의 주체가 되고 남성은 그 사랑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관계, 다시 말해 전통적인 쏘넬트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여성이 되고 싶어 하지만 쏘넬트의 화자로서 수동적으로 사랑의 힘에 굴복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첫 쏘넬트에서 드러나듯이, 쏘넬트에서 남성적이면서도 동시에 여성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팜필리아의 모순은 여성이면서도 군주의 역할을 해야 하는 바로 그 모순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의 힘에게 자신을 놓아버리고 복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갈등은 팜필리아의 자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 팜필리아는 여염집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한 나라의

10) 로버츠는 로쓰의 자필원고에서 11행에서 “shutt”라고 읽고, 리처드 베어와 미카 베어(Richard .S. Bear and Micah Bear)는 “shoot”라고 읽고 있다. 이들의 표기를 따르면 큐피드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활과 화살을 가지고 팜필리아의 사랑의 시작에 있어서 비너스와 공동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로쓰 작품들의 가장 권위있는 편집자로 인정받는 로버츠의 표기를 따를 경우 이 첫 쏘넬트에서 큐피드는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비너스의 명령을 따르며 그녀를 도울 뿐이다. Lady Mary Wroth, “Pamphilia to Amphilanthus,” *Renascence Editions*, University of Oregon, 1996 <[http://darkwing.uoregon.edu/%7Erbear/mary.html#\(6\)](http://darkwing.uoregon.edu/%7Erbear/mary.html#(6))>.

군주인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 군주는 남성 군주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혹은 여성 군주로서의 지배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혹은 여성 군주로서 주체와 전통적인 여성적 주체는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등등의 질문들은 군주로서의 팸필리아의 갈등에서 도출해볼 수 있음직한 질문들이다. 『유래이니어』에서 팸필리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앰필란썬스의 배신과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성실(constancy)이고, 쏘넬트에서도 여성의 사랑의 성실과 남성의 변심은 계속되는 주제이다. 팸필리아는 개인적인 사랑의 불행 속에서 자신의 내적 본성과도 같은 성실성을 잃지 않으며 국가 통치에 있어서 이 성실함은 더욱 빛을 발한다. 팸필리아의 모습이 여러 곳에서 엘리자베스여왕을 상기시키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토가 “언제나 변함없이”(semper eadem), 이듯이, 그녀의 성실은 앰필란썬스에 대한 사랑의 성실을 넘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 군주로서 국민에 대한 성실이다. 로버츠는 앰필란썬스의 불성실과 죽었다는 보고 등으로 인해 팸필리아가 겪게 되는 사적인 갈등이 그녀의 군주로서의 임무수행을 위협한다고 보지만 (Roberts, “Radigund” 200), 그러한 위협은 일시적인 것이고 오히려 사랑을 시련을 통해 팸필리아는 중요한 여성적 덕목인 성실을 지켜나갈 뿐 아니라 그 여성적 덕목을 군주로서의 덕목으로 변용시켜 군주로서의 자질을 훈련한다 할 수 있다.

팸필리아가 사랑의 갈등 속에 내재한 힘의 역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힘의 문제와 직면해야 하는 군주로서의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다음 쏘넬트에서 팸필리아는 이미 자신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사랑의 힘을 느끼면서 그 힘을 다른 인간에게 행사하는 지배력의 본질과 연관짓는다.

나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울부짖네,
당신의 종을 떠나시나요? 이것만을 생각해주세요,
사랑의 왕관을 쓴 이는 이렇게 잘못해서는 안 되고
그대의 힘에 놓인 이들의 선을 추구해야 만하는 것을.

I, for mercy cry;

Will you your servant leave? Think butt on this;
 Who weares love's crowne, must nott doe soe amiss,
 Butt seeke theyr good, who on thy force doe lye. (P3, 11-14)

권력의 원천은 힘이 있다고 느끼는 자신에게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기도 하다(McClelland 13-21). 그런데 문학적 관습이나 정치적 상황에서 당연히 숭배와 찬사의 대상으로 권력을 가지는 팸필리아가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야하는 것은 그녀의 자아에 도전이고 시련이 아닐 수 없다. 사랑에서도 군주의 역할을 하고 싶은 그녀의 욕망은 계속 좌절되고 꺾이게 되자, 힘을 행사하는 것이란 궁극적으로 통치 받는 자들의 선을 지향해야 국가통치의 법칙의 유희를 들어 사랑의 군주에게 충고조로 사랑을 구한다.

팸필리아가 사랑의 군주에게 통치에 대해 이렇게 충고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의 관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힘을 행사하는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은 장난스럽고 제멋대로 지배하는 군주 큐피드로 형상화된다.

사랑이시여, 그만 재촉하셔요, 당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 데서 싸우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요.
 제발 부탁이니 그만해주세요요, 저는 당신의 굴레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당신의 힘을 밀어 붙이지 마셔요
 보세요 제가 행복합니다, 군대들을 해산시키셔요.
 저는 정복당해 묶여 있는 당신의 신하,
 당신께 저항하는 자들에 대한 당신 몫을 얻으려 노력하며,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도왔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한다고 고집하시는 것 같으니,
 고백컨대, 저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 것은 당신의 의지였지요;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저는 연인이 되었고,
 그때 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제 자유를 거부했지요.

헌데, 신이시여, 저는 당신의 소년스런 권위는 경멸합니다.

당신의 매력에는 순종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답니다.

Love leave to urge, thou know'st thou hast the hand;
 'Tis cowardise, to strive wher none resist:
 Pray thee leave off, I yeeld unto thy band;
 Doe nott thus, still, in thine owne power persist,

Behold I yeeld: lett forces bee dismist;
 I ame thy subject conquer'd, bound to stand,
 Never thy foe, butt did thy claime assist
 Seeking thy due of those who did withstand;

Butt now, it seemes, thou would'st I should thee love;
 I doe confess, t'was thy will made mee chuse;
 And thy faire showes made mee a lover prove
 When I my freedome did, for paine refuse.

Yett this Sir God, your boyship I despise;
 Your charmes I obey, butt love nott want of eyes. (P9)

이 쏘넷트에서는 페트라르카식 연애시에서 즐겨 사용하는 수사학적 표현들을 사용하여 궁정식 연애를 조롱한 존 던(John Donne)식의 풍자적이고 자의식적이고 냉소적인 어조가 느껴진다. 팸필리아는 사랑에 대해 봉건적인 충성을 바쳐야함을 알고 있고 자신이 이미 그 힘에 사로잡혀 지배를 받고 있음도 잘 의식하고 있다. 그런데 그녀가 너무나도 잘 꿰뚫어 보는 사랑의 군주의 부족한 자질이 그녀로 하여금 기겁고도 완전한 승복을 하기 힘들게 한다. 그녀는 인간의 내면을 감동시키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혹하게 하는(14) 기교를 부리는 무분별하고(14) 미성숙한 사랑이 자신을 승복시키려함을 알고 그러한 궁정식 사랑의 힘에 승복하기를 거부한다.

팸필리아의 궁정식 사랑에 대한 비판과 거부의 이유는 다음 노래(Song)에 잘

나타난다.

만일 큐피드가 서둘러 숲으로 가서,
가연은 내 영혼을 그의 법에 묶어놓는다면, 아 슬퍼라.

궁정으로 간다면, 오 안 돼, 그가 불쾌하다 소리치네, 아 슬퍼라,
당신은 어떤 진실한 사랑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아 슬퍼라;
그 장소는 가장 불성실한 연인들에게 맡겨놓으세요.

Iff to the Forest, Cupid hyes,
And my poore soule to his lawe ties Ay me.

To the Court: O no. Hee crys fy Ay mee;
Ther no true love you shall espy Ay mee:
Leave that place to faulscest lovers (P14, 15-19)

궁정이 거짓 사랑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진실하지 못한 궁정식 사랑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전통적인 연애시에서 등장하는 여성의 역할을 거부할 뿐 아니라 남성연인화자의 역할 또한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팸필리아는 무조건적인 숭배와 찬사의 대상인 듯하나 결국 남성 욕망의 틀에 갇혀 자아를 상실하는 여성의 역할을 거부할 뿐 아니라, 승복할 만한 고귀한 권위를 가지지 못한 유치한 사랑에 승복하는 남성 연인의 역할 또한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팸필리아는 궁정식 사랑놀이에서 연인의 불충실과 진실하지 못한 사랑에 대해 그리고 그 사랑에 애달파하는 자신에 대해 거리를 두고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곡예사 같은 사랑이 노획물 놀이를 하러오면,
온갖 마음들을 끌어당겨 자기의 놀라운 재주에 감탄하게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도)
욕망의 최고의 눈을 속일 수 있는지 보게 한다네.

바람둥이 어린애, 그는 아무도 자기 속임수를 못보게
 얼마나 예쁘게 자기 불길을 꾸며대는지,
 얼마나 근사하게 술책을 부리는지; 그동안 바보인 우리들은
 그의 독재권의 휘장을 달고 임무를 수행한다네.
 결국 그는 우리 눈이 아니라 마음을 가져갈
 그런 재주를 부리고 있으니.
 인간은 보는 것에 의해서만 기만당할 수 있으니,
 피바르고 즐거운 숨씨를 부리는 모습에 의해서만.
 그러나 그가 재주를 부리면 그의 이득은 우리의 잃어버린 의지,
 허나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그의 장난스런 놀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네.

Love like a jugler, comes to play his prise,
 And all minds draw his wonders to admire,
 To see how cunningly, hee, wanting eyes,
 Can yett deseave the best sight of desire:

The wanton child, how hee can faine his fire
 So pretely, as none sees his disguise!
 How finely doe his tricks, while wee fooles hire
 The badge, and office of his tirannies.

For in the end, such jugling hee doth make
 As hee our harts, in stead of eyes doth take
 For men can only by theyr slieghts abuse

The sight with nimble, and delightfull skill;
 Butt if hee play, his gaine is our lost will;
 Yett childlike. wee can nott his sports refuse. (P64)

이 쏘넬트에서 사랑은 교묘한 재주를 부리며 눈가림으로 사람들을 속여 그 마음을 미혹시키는 요술쟁이 같은 인간 욕망의 놀이꾼이다. 팸필리아는 곡예사 큐피드의 놀라운 숨씨에 탄복하며 찬사를 보내면서도 그 어리석음과 거짓 또한 꿰뚫

어 보고 있다. 속임수를 쓰며 제멋대로 굴어 다루기 힘든 큐피드가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면이 있고 그러한 사랑이 끝없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놀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녀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자신을 좌지우지 지배하는 힘이 어린아이와 같이 때로는 유치하고 미성숙하면서도 사람을 미혹시키는 재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힘에 복종하며 매여 있는 자신 또한 그 수준의 어리석은 존재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 어리석음, 미성숙함 등에 대한 그녀의 이러한 인식이 보답 받지 못한 사랑이 가져다주는 고통스런 감정들과 함께 쏘네프트 전편을 우울하고 절망적이며 때로는 냉소적인 분위기로 감싸게 된다.

실제 사랑의 관계에서 여성이 지배권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으며 군주인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랑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절감하자, 팜필리아는 힘을 얻기 위해 사랑의 군주인 비너스에게 호소한다.

말해보श्य, 비너스여, 얼마나 오래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겼나요?
 헌데 내 모든 열정들은 경멸당하거나 분명한데도 의심을 받았습디다,
 아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도 사랑한 적이 있다는 것
 을 생각해주시요.
 제 노고를 보श्य, 당신도 그렇게 겪지 않았나 보श्य;
 그러니 당신은 욕망의 여왕이심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성스러운 힘이 이 불길을 만지고 느꼈던 것을 기억하श्य요.
 내 안에 이 불길들을 멈추게 하거나 없애도록 설득해श्य요.

.....
 저 제멋대로 구는 어린아이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권리를 주라 명령하시고,
 그의 활과 화살이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기쁨의 눈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굴복하게 하श्य요.
 그러면 제가 동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를 지도 모르
 지요.

그가 상처를 주면서도 구원할 수 있다고 의기양양하지 못하게 하श्य요.

더욱이, 당신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었다고 자랑하며 떠벌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를 지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무슨 좋은 일을 볼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요?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그가, 슬퍼라, 저를 살해할 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Say Venus how long have I lov'd, and serv'd you heere?
Yett all my passions scorn'd or doubted, although cleere
Alas thinke love deserveth love, and you have lov'd,
Looke on my paines, and see if you the like have prov'd:

Remember then you ar the Goddess of desire,
And that your sacred powre hath touch'd, and felt this fire.
Perswade thes flames in mee to cease, or them redress

.....
Command that wayward child your sonn to grant your right,
And that his bowe, and shafts hee yeeld to your fayre sight
To you who have the eyes of joye, the hart of love,
And then new hopes may spring that I may pittie move:

Let him nott triumph that hee can both hurt, and save,
And more, brag that to you your self a wound hee gave.
Rule him, or what shall I expect of good to see
Since hee that hurt you, hee alas may murder mee. (P58)

이 쏘네티의 배경은 오비드(Ovid)의 『변용』(*Metamorphosis*)에 등장하는 비너스와 큐피드의 일화이다(Roberts, *Poems* 117). 어머니 비너스에게 애정 어린 입맞춤을 하던 큐피드는 실수로 자신의 화살로 비너스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마는데, 이 사랑의 상처를 입은 비너스는 아도니스(Adonis)와 절망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다. 첫 쏘네티에서 큐피드의 완전한 복종을 받은 듯이 보였던 비너스도 큐피드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팸필리아는 비너스가 아도니스로 인해 겪은 사랑의 고통을 상기시키며 사랑의 군주요 여신인 비너스가 자신의 편이 되어 줄

것을 그녀에게 호소한다. 그리고 비너스와 큐피드 사이의 위계질서를 회복하도록 촉구한다. 팜필리아는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유치하고 미성숙한 큐피드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더 높은 권위에게 사랑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같은 여성으로서 비너스가 자신의 여성성을 그리고 군주로서의 자아를 강화시켜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신화적 일화가 암시하듯이 비너스는 큐피드의 어머니이지만 더 높은 권위를 가지는 지는 의심스럽다. 비너스가 바람둥이 큐피드에게 굴복하여 벌이는 아도니스와의 애정행각은 팜필리아가 작품 전체에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성실의 덕에 어긋나는 행동이기에 이미 여성으로서 군주로서 비너스의 도덕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는 팜필리아는 비너스가 더 이상 사랑의 군주가 아니며 욕정의 여왕일 뿐이고 사랑의 최고 통치권자는 큐피드라고 선언한다.

오 큐피드여, 당신 어머니가 자신의 수치를 알게 하세요,
 그녀가 이 젊은이들의 불장난을 그만 둘 때인데,
 그 짓은 그녀의 불명예이고 세세에 비난받을 일이고,
 당신 이름의 위대함을 앗아갑니다.
 당신은 사랑의 신이고, 그녀는 단지 욕정의 여왕일 뿐,
 허나 당신을 약하게 하여 불의를 저지르려 합니다.

O Cupid! lett thy mother know her shame,
 'Tis time for her to leave this youthfull flame
 Which doth dishonor her, is ages blame,
 And takes away the greatnes of thy name;

Thou God of Love, she only Queene of lust,
 Yett strives by weakning thee, to bee unjust. (P95, 9-14)

팜필리아는 비너스가 아도니스와 빠진 사랑을 “방탕한 욕망”과 “바람피우는 장

난,” “부정하고 저속한 쾌락”에 휘둘린 뻔뻔스러움이라고 비난한다(6-7). 첫 쏘넬트에서 비너스를 사랑의 군주로 선포하여 사랑에 있어 여성의 주체성을 부여하였는데, 이제 그 군주권을 큐피드에게 넘긴다면 팸필리아는 사랑에 있어 여성의 주체성을 온전히 포기하는 것인가? 더브로우는 로쓰가 사촌 허버트와의 부적절한 혼외 관계를 통해 받았던 비난을¹¹⁾ 신화적 인물인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고 성실하지 못한 비너스에게 투사하여 그 비난을 부인하는 동시에 적어도 인정하고 있으며 사랑의 욕망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전통적인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한다(Dubrow 157). 로쓰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더브로우가 해석하듯이 로쓰의 죄의식이 방종한 비너스에게 투사된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불성실과 상관없이 자신의 사랑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성실한 팸필리아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비너스의 통치권을 큐피드에게 넘기는 것은 팸필리아가 불륜과 숭배 대상으로 남성연인의 욕망의 투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쏘넬트의 여성연인의 모습과 그에 따라 형성되었던 자신의 거짓된 여성적 자아를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을 구하는 여성화자,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여하는 위치인 복종의 위치를 택한 것이다. 사랑에 있어서 남성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사랑에 있어서 전통적인 성 위계질서를 받아들임으로써 팸필리아는 사랑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추구한다. 팸필리아가 사랑에 있어서 남성군주인 큐피드의 전적인 지배권을 인정하지만 그 남성 군주는 지금까지 큐피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군주이고 팸필리아가 갈망하는 사랑 또한 궁정식 사랑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다. 자신이 사랑을 바치는 남성 군주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남성 군주에게 승복함으로써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군주로부터 사랑을, 즉 힘과 권위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자아는 자아 밖의 권력에서 힘과 권위를 구함으로써 강해질

11) 윌리엄 허버트(William Herbert)는 로쓰의 고모인 메리 허버트의 큰 아들로서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지주 왕래하며 함께 자랐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배우자와 결혼했지만, 로쓰는 남편 사망 후에 허버트와의 사이에 두 아이를 낳았으며(Roberts, *Poems* 24-25) 이런 일들은 로쓰의 명예에 오점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수 있으므로(McClelland 13), 팜필리아는 바람직한 자질을 가진 사랑의 군주에게 승복함으로써 자신의 남성적 자아, 즉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이라고 간주되는 자신의 군주의 자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팜필리아가 진정으로 승복할 수 있는 사랑의 군주 큐피드의 모습은 “사랑에게 바친 쏘넛트 화관”(“A Crowne of Sonetts dedicated to Love”)에 잘 나타난다. 화관시(이탈리아어로 Corona)는 쏘넛트와 같은 짧은 일련의 시들로 이루어지는데, 각 시의 첫 행은 앞선 시의 마지막 행으로 시작한다. 그리하여 제일 마지막 시의 마지막 행은 첫 시의 첫 행이 되어 일련의 시들이 하나의 원을 이루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쏘넛트 화관이라 불리는 만큼 팜필리아의 화관시는 쏘넛트의 14행에 일치하는 14개의 쏘넛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팜필리아가 진실로 원하는 사랑의 힘에 대한 찬가이다.

사랑의 “낮선 미로”(P78, 1)에서 우왕좌왕하던 팜필리아는 점차 그 미로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사랑의 힘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잔재주나 연애기술, 그 렇싸한 겉모습 등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시키는 힘임을 깨닫는다. 사랑은 무분별하게 빠지는 열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악을 제거하는 선을 취하도록 / 이끌어 주는”(P78, 5-6) “진정한 덕”(13)이다.¹²⁾ 사랑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힘(Virtue)이라면 그 힘은 팜필리아가 로맨스와 쏘넛트 전편에서 추구하는 성실의 힘이며 바로 군주로서의 팜필리아에게 힘과 권위를 부여하는 힘이다. 팜필리아가 원하는 큐피드의 사랑의 궁정에서는 “신의”와 “성실”이 지배하는 곳이다(P80, 1-3). 신의와 성실은 남녀 간의 충실한 사랑을 이어주는 힘이면서 동시에 군주와 신하간의 충실한 관계를 이어주는 힘이기도 하다.

12) 큐피드의 이 두 가지 다른 모습을 잘 묘사한 것이 알치아티(Alciati)의 엠블렘(emblem) “안테로스(Anteros)에 의해 정복된 에로스(Eros)”이다(Beilin, “The Onely Perfect Virtue” 233). 에로스는 통념적인 사랑이고 안테로스는 덕에 대한 사랑으로, 알치아티의 엠블렘에서 안테로스는 에로스의 우위에 있다. 로쓰의 경우에는 안테로스적 큐피드가 팜필리아가 온전히 승복하기를 원하는 큐피드인 것은 사실이나, 로쓰의 작품에서 안테로스가 에로스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하고 둘 관계는 화관시가 시작과 끝을 구별하기 어렵게 서로 꼬리를 물고 연결된 것처럼 우위를 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신의와 거짓 없는 사랑의 열정은 또한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켜 영혼을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는 덕으로 가득 차게 한다(P81, 4-7). 그리하여 사랑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인도하는 예언자요 스승이기도 하다(14).

그는 우리의 예언자요 스승임이 입증되고,
 그에게서만 이 힘을 발견하네,
 두 마음을 하나의 몸속에 움직이게 하는 것 같은 힘을;
 몸은 둘이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의 영혼;

하나의 소중한 대상에 묶여있고자 하는 눈
 그밖에 다른 모든 것들 보다 감미롭고 박식한 듯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귀; 연인들의
 이 다정스런 만족이 참된 사랑의 증거라네.

그 사랑은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당신 자신 안에서
 당신이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당신의 지식으로부터 감추어져 있으나 당신 안에 저장된
 그런 재능들에게 당신이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하네.

이런 수많은 진실한 사랑이 사랑의 권좌를 꾸미니,
 그 사랑의 총애를 받는 이들은 얼마나 복된가.

He may our prophitt, and our Tuter prove
 In whom alone wee doe this power finde,
 To joine two harts as in one frame to move;
 Two bodies, butt one soule to rule the minde;

Eyes which must care to one deere object bind
 Eares to each others speech as if above
 All els they sweet, and learned were; this kind
 Content of lovers wittniseth true love.

Itt doth inrich the witts, and make you see
 That in your self, which you knew nott before,
 Forcing you to admire such guifts showld bee
 Hid from your knowledg, yett in you the store;

Millions of thes adorne the throne of Love,
 How blest bee they then, who his favours prove. (P82)

열정적인 사랑에 불타기 시작하여 두려움, 절망, 회의, 질투, 의심, 배신, 기쁨과 환희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랑의 미로에서 길을 찾은 팼필리아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보다도 마음과 마음의 결합이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의 육신이 하나 되고 영혼이 하나 되며 그리고 눈과 귀 같은 신체의 부분 부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신적인 거룩한 사랑으로 영혼을 채우는데 팼필리아가 사랑의 신적인 차원을 파악한 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사랑의 보다 깊은 근원을 인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자신의 존재의 깊은 근원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팼필리아가 사랑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고(10) 그 차원이 지금까지 자신이 알았던 차원과는 다른, 그래서 “신적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하겠다.

자기 인식의 깊이는 곧 타자에 대한 인식의 깊이와 비례한다. 자기 인식의 힘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더 잘 알게 해준다.

사랑은 당신을 미술가로 만들어, 가장 재주가 뛰어난 장인 보다
 당신의 유일한 사랑을 더 실물 같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보다 진실하게
 그리고 당신에게 더 가깝게 그릴 수 있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최소의 것, 그러니 모든 이들이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을 피하는 이는 자신을 덜 사랑한다는 것을.

Love will a painter make you, such, as you

Shall able bee to drawe your only deere
More lively, parfett, lasting, and more true
Then rarest woorkman, and to you more neere.

Thes be the least, then all must needs confess
Hee that shunns love doth love him self the less. (P83, 9-14)

사랑의 힘은 이렇게 인간이 자신과 타인을 보다 완전하고 진실하게 인식하도록 해주는 힘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행에서 팸필리아가 공언하듯이, 앰필란씨에 대한 사랑에 헌신한 그녀의 사랑의 과정은 자신의 가장 완전하고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이 된 것이다.

또한 팸필리아가 찬양하는 사랑은 겉모습에 혹하는 “비너스의 어리석음”(P86, 2)이나 “외설적인 사랑의 방식”(4)을 따르는 사랑과 구별된다. 여기서 팸필리아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였던 비너스의 모습을 완전히 폄하하는데, 비너스는 “덧없는”(8) 열정과 욕정의 상징일 뿐이고 욕정과 구별되는 사랑은 이성이 인도하는 사랑이다.

이제 사랑은 이성을 신뢰하고,
미덕과 애정이 함께 올바른 부모인
사랑과 이성의 자식으로 태어나니,
이성은 나라의 조연자, 사랑은 나라의 통치자로 그 왕관을 오래 써왔으나,
경멸받을 두려움이 없는 통치권을
그 어느 쪽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지요.

For Love in reason now doth putt his trust,
Desert, and liking are together borne
Children of love, and Reason parents just,

Reason adviser is, love ruler must
Bee of the state which crowne hee long hath worne

Yett soe as neither will in least mistrust
The government wher noe feare is of scorne, (P86. 2-8)

이 쏘넧트에서는 “국가의 권력과 사랑의 권력의 유비”(Beilin, “Winning” 9)가 가장 잘 드러난다. 사랑을 인도하는 힘은 무분별하고 경솔하게 빠지는 열정과 욕정이 아니라 이성이다. 유사하게 군주의 통치권의 근원은 권모술수나 군대와 같은 무력이라기보다는 사랑과 존경과 같은 도덕적 덕목에 있는 것이다.

사랑의 힘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아와 타자를 발견하게 하고 자신의 인간 경험의 초월적인 차원을 인식하게 하며 또 국가를 다스리는 도덕적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팸필리아는 얇은 차원에서 자신이 경솔하게 판단하여 온전히 복종하기를 거부한 사랑의 군주에게 온전히 승복한다.

그러니, 모든 마음의 통수권자,
우리 애정의 자비롭고 정의로운 통치자,
사랑의 위대한 왕이신 당신에게,
거짓 꾸민 상처들과 변심으로부터 빼낸 제 영혼과,
왕관인 이 시들, 제 자신 그리고 제가 더 가진 모든 것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전에 당신께서 하사하신 제 마음을 제외하고.

To thee then lord commander of all harts,
Ruller of owr affections kinde, and just,
Great King of Love, my soule from fained smarts
Or thought of change I offer to your trust

This crowne, my self, and all that I have more
Except my hart, which you beestow'd beefore. (P89. 9-14)

팸필리아는 사랑과 통치의 힘은 내적인 도덕적인 힘임을 깨닫게 되자, 변덕스럽고 거짓스런 사랑의 힘에 대한 비난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 변함없는 충성과 자기 자신을 사랑의 군주에게 바친다. 유치하고 미성숙

한 소년 왕이 아니라 예언자요 스승과 같은 군주인 큐피드는 팸필리아가 사랑하는 앰필란썬스는 결코 아니고 그녀가 이상화한 어떤 남성의 모습도 아니다. 이 성숙한 군주인 큐피드는 팸필리아가 앰필란썬스에 대한 사랑의 고통의 여러 단계의 질곡들을 벗어나 발견한 신성한 자신의 사랑의 힘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인식한 그녀 자아의 진실한 한 모습이다. 이 사랑의 힘은 로맨스에서 팸필리아를 성실 자체로 변용시켜 주며¹³⁾ 전통적 여성에게는 거부되는 군주의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그녀에게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군주로서의 권위를 부여한다. 팸필리아에게 있어서 사랑의 시련은 곧 자신의 내면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인 성실에 도달하도록 이끈다.¹⁴⁾ 그 여성적인 도덕의 힘은 그녀의 여성적 자아를 정화시키고 통례적으로 남성에게 부여된 군주로서의 역할을 그녀로 하여금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여 인격적으로 성숙한 통합을 이루게 한다. 팸필리아가 성숙한 군주

13) 팸필리아가 성실의 덕의 핵심적인 상징이라는 것은 『유래이니어』 1부 1권의 마지막에서 잘 드러난다. 많은 주인공들이 우여곡절 끝에 비너스의 왕국인 사이프러스 섬에 난파당해서 모이게 되는데, 이 섬에는 사랑의 권좌(Throne of Love)가 있으며, 이곳에 도착한 연인들은 사랑의 힘에 의해 마술에 걸려 묶이게 된다. 앰필란썬스와 팸필리아는 이 마술에 묶인 이들을 풀어주고자 사랑의 집(House of Love)의 탑들을 향해 간다. 사랑의 집은 연인들이 그들의 사랑의 거짓됨과 충실함이 시험을 당하는 곳이다. 첫 번째 탑은 큐피드의 탑, 혹은 욕망의 탑으로 사랑에 성실하지 못한 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들어가면 그런 잘못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 두 번째 탑은 사랑의 탑으로 어떤 연인이든지 들어가면 그들의 사랑에 가장 많이 따르는 질투, 절망, 두려움, 희망, 갈망 등으로 고통당하게 된다. 세 번째 탑은 성실이 지키고 있는 탑으로, 가장 성실한 여성과 가장 용감한 남성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사랑의 집에 묶여 있는 연인들을 마술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게 된다(1. 1. 48-49). 마지막 탑에서 우의적 인물인 성실(Constancy)이 건네주는 열쇠가 연인들이 붙들려 있는 정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는데 팸필리아 만이 그 열쇠를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집의 가장 내실로 들어가는 열쇠는 바로 사랑에 대한 성실함이기 때문에 성실은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팸필리아의 마음은 성실의 덕 자체가 머무르는 곳이 되며 사랑의 집 정원에 마술에 걸려있는 연인들을 풀어줄 수 있게 된다.

14) 바바라 르왈스키(Barbara Lewalski)는 로쓰가 전형적으로 여성적인 덕목인 성실을 팸필리아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녀의 작품의 급진성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하나(Lewalski 263), 여성 군주에게 남성적 덕목이 아닌 여성덕목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공적인 주체성을 강화한다고 생각된다.

인 큐피드에게 승복하여 성실한 사랑의 힘을 얻었다는 것은 팜필리아가 사랑하는 여성으로서의 자신과 공적인 군주로서의 자신에게 투신하기로 선택하였음을 시사한다.¹⁵⁾

이렇게 일견 사랑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 발견의 과정에 있어서 완전함에 도달한 듯하지만, 마지막 행에서 팜필리아가 자신의 마음만을 군주에게 바치기를 거부하는 데에서 상황은 또 다른 반전을 암시한다. 그 마음은 사랑의 경험들의 중심으로 그 마음을 바치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랑의 주체는 팜필리아 자신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과거의 모든 긴장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통합한 듯이 보였지만, 팜필리아의 사랑은 다시 자기 자신이라는 미로에 빠지게 된다. 그리하여 화관시는 원을 이루어 팜필리아에게 다시 “이 낮은 미로에서 어디로 가야하나”하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게 한다. 인간에 대한 사랑의 경험이 비록 신적인 차원을 체험할 정도로 깊이가 있다할 지라도 안테로스과 에로스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팜필리아로 하여금 이 미로를 잠시나마 벗어나게 하는 것은, “비너스와 그녀의 아들의 담론은 젊은 초보자에게 물려주고”(P103, 9-10) “성실한 사랑”(P103, 2) 속에서 영원한 선인 진리와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는 때이다. 베일린은 팜필리아가 쏘네티트 연작의 후반부에서 인간적인 사랑과 성실에서 벗어나 신에 대한 사랑과 성실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Beilin “The Onely Perfect Vertue”), 팜필리아가 완전히 이 세상의 남녀 간의 사랑을 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 팜필리아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은 유치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긍정적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한 가장 좋은 품성, 그 안에 유한을 넘어서는 신적인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덕목에 기반을 둔 사랑이라 하겠다.

15) 쏘네티트의 연인들이 그러하듯이 『유래이니어』에서 팜필리아와 앰필란쯔스의 사랑은 결코 결혼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팜필리아의 삶에서 사적인 사랑과 공적인 권력의 의무는 분명히 갈등관계에 있는 듯이 보인다. 로버츠는 앰필란쯔스에 대한 사랑이 팜필리아가 공무에 헌신하는데 위협이 되는 요소라고 까지 주장하는데(Roberts, “Radigund” 199), 두 요소는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면서도 팜필리아로 하여금 주체적인 여성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팜필리아의 사랑의 과정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직선적인 과정은 결코 아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힘들에 휘둘리며 힘겹게 참된 사랑과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은, 순서가 일정한 화관시를 제외하고는, 83편의 쏘넬트와 20편의 노래들 전체에 두서없이 전개된다. 로쓰는 페르소나인 팜필리아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의 쏘넬트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시촌 허버트와의 실제적인 관계에 거리를 두고 그로부터 자유롭게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를 탐구한다. 또 여성인 로쓰는 남성 쏘넬트 작가들이 즐겨 사용한 문학적 유산을 이용하면서도 사랑에 대한 그들의 관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서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진 대안적 사고를 할 수 있었다. 큐피드는 팜필리아의 자아의 남성적인 측면을 가시적으로 형상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그녀의 공적인 자아, 즉 일반적으로 남성의 임무로 간주되는 군주로서의 자아의 형상화라고 볼 수 있다. 여성으로서 군주로서 강한 자의식과 독립성을 가진 팜필리아와 남성 군주로 형상화되는 큐피드의 힘과의 긴장과 갈등관계는 사랑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특히 군주로서의 자신의 역량과 자질, 통치의 근본적인 힘에 대한 그녀의 성찰을 함축하고 있다. 로맨스에서 팜필리아는 성공적으로 군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제일 마지막 쏘넬트에서 말하듯이, 그녀가 깨달은 것, “지나간 것은 [그녀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P103, 13)에서 나온다. 앰필란썬스와의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하더라도 팜필리아는 그 사랑을 통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고 자신 안의 사랑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이다. 그 사랑의 능력은 사랑에 있어서 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변함없는 충실함, 성실로서 군주로서의 그녀에게 힘과 권위를 부여한다.

주제어: 메리 로쓰, 『팜필리아가 앰필란썬스에게 부르는 노래』, 쏘넬트 연작, 여성적 자아, 큐피드, 성, 권력, 『유레이니어』

Works Cited

- Beilin, Elaine. "The Onely Perfect Vertue: Constancy in Mary Wroth's *Pamphilia to Amphilanthus*." Ed. Patrick Cullen and Thomas P. Roche. *Spenser Studies* II. Pittsburgh: U of Pittsburgh P, 1981. 233-41.
- . "Winning 'the harts of the people': The Role of the Political Subject." Ed. Sigrid King. *Pilgrimage for Love: Essays in Early Modern Literature in Honor of Josephine A. Roberts*. Tempe, AZ.: Arizona Center for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1999. 1-17.
- Brennan, Michael G. "Creating Female Authorship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Ben Jonson and Lady Mary Wroth." Ed. George L. Justice and Nathah Tinker. *Women's Writing and the Circulation of Ideas: Manuscript Publication in England, 1550-1800*. Cambridge: Cambridge UP, 2002.
- Dubrow, Heather. *Echoes of Desire: English Petrarchism and its Counterdiscourses*. Ithaca: Cornell UP, 1995.
- Goldberg, Jonathan. "Fatherly Authority: The Politics of Stuart Family Images." Ed. Margaret W. Ferguson, Maureen Quilligan, and Nancy J. Vickers. *Rewriting the Renaissance: The Discourses of Sexual Difference in Early Modern Europe*. Chicago: U of Chicago P, 1987. 3-32.
- Hanson, Elizabeth. "Boredom and Whoredom: Reading Renaissance Women's Sonnet Sequences," *Yale Journal of Criticism* 10(1997): 165-91.
- Hyde, Thomas. *The Poetic Theology of Love: Cupid in Renaissance Literature*. London: Associated UP, 1986.
- Lamb, Mary. *Gender and Authorship in the Sidney Circle*. Madison, WI.: U of Wisconsin P, 1990.
- Lewalski, Barbara K. *Writing Women in Jacobean England*. Cambridge: Harvard UP, 1993.

- Masten, Jeff. "Shall I turne blabb?: Circulation, Gender, and Subjectivity in Mary Wroth's Sonnets," Ed. Naomi J. Miller and Gary Waller. *Reading Mary Wroth: Representing Alternative in Early Modern England*. Knoxville, KY.: U of Tennessee P, 1991. 67-87.
- McClelland, David C. *Power: The Inner Experience*. New York: Irvington, 1975.
- Montrose, Louis Adrian. "A *Midsummer Night's Dream* and the Shaping Fantasies of Elizabethan Culture: Gender, Power, Form." Ed. Ferguson, Margaret W., Maureen Quilligan, and Nancy J. Vickers. *Rewriting the Renaissance: The Discourse of Sexual Difference in Early Modern Europe*. Chicago: U of Chicago P, 1986. 65-87.
- Norbrook, David. *Poetry and Politics in the English Renaissance*. Rev. ed. Oxford: Oxford UP, 2002.
- Payen, Paula Harms. "Finding a Poetic Voice of Her Own: Lady Mary Wroth's *Urania* and *Pamphilia to Amphilanthus*." Ed. Sigrid King. *Pilgrimage for Love: Essays in Early Modern Literature in Honor of Josephine A Roberts*. Tempe, AZ.: Arizona Center for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1999. 209-20.
- Quilligan, Maureen. "The Constant Subject: Instability and Female Authority in Wroth's *Urania* Poems." Ed. Elizabeth D. and Katherine Eisaman Maus, *Soliciting Interpretation: Literary Theory and Seventeenth-Century English Poetry*. Chicago: U of Chicago P, 1990. 307-35.
- Roberts, Josephine A. "Lady Mary Wroth's Sonnets: a Labyrinth of the Mind." *Journal of Women's Studies in Literature* 1(1979): 325-26.
- . "Radigund Revisited: Perspectives on Women Rulers in Lady Mary Wroth's *Urania*." Ed. Anne M. Haselkorn and Betty S. Travitsky. *The Renaissance Englishwoman in Print: Counterbalancing the Canon*. Amherst, MA.: U of Massachusetts P, 1990. 187-207.

- Ruth. Swift, Carolyn “Feminine Identity in Lady Mary Wroth’s Romance *Urania*.”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14(1984): 328-46.
- Salzman, Paul. “The Stang[e] Constructions of Mary Wroth’s *Urania*: Arcadian Romance and the Public Realm.” Ed. Neil Rhodes. *English Renaissance Prose: History, Language, and Politics*. Tempe, AZ.: Medieval and Renaissance Texts & Studies. 1997. 109-24.
- Schochet, Gordon J. *Patriarchalism in Political Thought: The Authoritarian Family and Political Speculation and Attitudes Especially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New York: Basic, 1975.
- Smith, Rosalind. “Lady Mary Wroth’s *Pamphilia to Amphilanthus*: The Politics of Withdrawal.”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30(2000): 427-29.
- Villeponteaux, Mary. “Poetry’s Birth: The Maternal Subtext of Mary Wroth’s *Pamphilia to Amphilanthus*.” Ed. Sigrid King. *Pilgrimage for Love: Essays in Early Modern Literature in Honor of Josephine A Roberts*. Tempe, AZ: Arizona Center for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1999. 164-75.
- Wroth, Mary. *The Poems of Lady Mary Wroth*. Ed. Josephine A. Roberts.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1983.
- . “Pamphilia to Amphilanthus.” *Renascence Editions*. University of Oregon. 1996 <[http://darkwing.uoregon.edu/%7Erbear/mary.html#\(6\)](http://darkwing.uoregon.edu/%7Erbear/mary.html#(6))>.
- . *The First Part of The Countess of Montgomery’s Urania*. Ed. Josephine A. Roberts. Completed by Suzanne Gossett and Janel Mueller. Medieval and Renaissance Texts & Studies. Vol. 211. Tempe, AZ.: Arizona Center for Medieval and Renaissance. 1995.
- . *The Second Part of The Countess of Montgomery’s Urania*. Ed. Josephine A. Roberts. Completed by Suzanne Gossett and Janel Mueller. Medieval and Renaissance Texts & Studies. Vol. 140. Tempe, AZ.: Arizona Center for Medieval and Renaissance Studies, 1999.

Pamphilia to Amphilanthus: Female Subject and Cupid

Abstract

Jin-Ah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Pamphilia's construction of her own subject as a woman and prince through her relationship with Cupid in *Pamphilia to Amphilanthus*. Petrarchan discourse conventionally includes the danger of subjection and loss of self of the poet-lover. Mary Wroth creates a female persona Pamphilia to explore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truggles in her experiences of love and dramatizes the conflict between passionate surrender and self-affirmation of female self in Pamphilia's relationship with Cupid which appears as sometimes a mischievous boy and some times a mature and virtuous monarch. Cupid is in Jung's terms Pamphilia's animus, which envisages her self-sovereignty as a woman and prince. As a lover Pamphilia wants to subject herself to Cupid to gain his favor, and yet she finds herself so intrigued by the infantile and self-centered aspects of love, the mischievous boy Cupid. Her subjugation in love is analogous to her subordinate relationship to men in a patriarchal society, and so threatens her princely subject that has been constructed by a discipline of dominance and rule. The contradictory female and male aspects of her subject often entrap her in the labyrinths of love. She thus seeks a new type of relationship in love, and in the "Crowne of Sonetts" turns to a just and esteemed monarch Cupid. By fully yielding to the wise and virtuous Cupid's sovereignty, Pamphilia finds herself empowered by his virtue, now her virtue, constancy that ensures her the sovereignty over her self as well as her kingdom.

Key Words

Mary Wroth, *Pamphilia to Amphilanthus*, sonnet sequence, female subject, Cupid, gender, power, *Urania*.